

아프카니스탄: 파쉬툰족(Pashtun)



Photo source: COMIBAM / Sepal



Map source: Bethany World Prayer Center © 1999.
Used with permission from Adopt-A-People Clearinghouse

인 구 : 1,617,000(joshua project.net)

위 치 : 칸다하르 지역(Source: Ethnologue 2010)

언 어 : 파쉬툰어

종 교 : 이슬람(순니파)

기독교 : 복음주의자 0.02%

성경번역 : 전권 없음, 부분번역 있음

개요 / 역사

‘정렬적’ 또는 ‘다혈질’이라는 단어는 아프카니스탄의 파쉬툰족을 묘사하기에 충분한 단어이다. 그들의 속담에 이르기를 “주먹을 날리지 않는 사람은 파쉬툰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 놀랄 것도 없는 것이, 악명 높은 탈레반이 파쉬툰 사람들 가운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보여주는 것은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한쪽으로 기운 불공평한 시각일 것이다. 그들은 중앙아시아의 인도-이란계열의 종족들이다. 파쉬툰 종족은 파쉬툰, 팍흐툰 또는 푸쉬툰과 같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운다. 파쉬툰어는 그들의 전통 언어이며, 지방에서 교역을 위한 언어로 달리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생활양식

파쉬툰족은 유목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주거지를 이동하며 그들의 생계는 가족의 번식과 양육에 의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에서 거주하는 몇몇 파쉬툰족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 대부분 글을 쓰고 읽으며, 특별히 여자들도 글을 쓰고 읽을 줄 안다.

파쉬툰족이 고수하고 있는 불문율과 같은 문화는 “윤리의 법”이다. 그들은 방문객에 대한 접대와 보호, 피난처의 제공, 평화, 용기, 변치 않음, 가족의 명예와 보호와 같은 덕목들을

중시한다. 여러 가지 힘겨운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통음악과 춤을 통해 기쁨을 찾으며, 시와 이야기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나눈다. 그들의 의복은 매우 간단하다. 남자는 길게 내려오는 면 셔츠와 헐렁한 바지, 터번을 두른다. 여자들은 '부르카'라고 알려진 온 몸을 가리고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눈 부분만 개방된 옷을 입는다. 주식은 '난'이라고 부르는 얇은 빵과 함께 커리와 양파와 마늘, 콩, 시금치에 치즈를 곁들인 음식이다. 차는 대중적인 음료이며 방문객에게 언제나 대접한다.

여자들의 생활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하며, 남자의 허가와 인도 없이는 재산을 소유하거나 공공장소에 갈 수 없고 교육 또한 받을 수 없다. 여자의 정체성은 남자 가족의 일원으로 연결되어 있다. 세계적인 변화의 추세와 함께 파슈툰 족의 전통도 변화되게 될 것이다.

거주지역

전통적으로 파슈툰족은 서부와 동부 산맥에 위치하여 장막을 치거나 흙집을 지어 생활하고 있다.

종교

10세기 이후 아프카니스탄의 종교는 이슬람이며, 현재 거의 모든 사람들은 무슬림이다. 이슬람교 문화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그들의 가정으로 부터 추방당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전 세계 박해순위 1위의 북한에 이어 박해순위 2위 국가인 아프카니스탄에서 기독교의 성장률은 극히 드물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많은 선교단체들이 사역을 접고 있으며, 기독교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이 정부에 의하여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기도제목

1. 아프카니스탄의 파슈툰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2. 주님께서 파슈툰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갈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자.
3. 주님께서 파슈툰족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자.
4.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과 적의를 가지고 자라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자.
5. 파슈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맘 문을 주께서 열어 주시기를 기도하자.
6. 아프간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단체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자.
7. 그들의 언어로 번역 된 예수영화를 통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